

Gary Yates 박사, Jeremiah, 강의 19, Jeremiah 26-45, 구조적 개요

© 2024 게리 예이츠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예레미야서에 대한 강의를 하는 Dr. Gary Yates입니다. 이것은 세션 19, 26~45장, 구조적 개요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서 연구의 새로운 부분을 시작하고 있으며 1장부터 25장까지 그리고 거기에 있는 유다에 대한 심판과 고발의 메시지를 26장부터 25장까지의 두 번째 부분으로 옮겨갑니다. 45.

우리는 주로 이 섹션에서 예레미야의 삶과 사역에 대한 이야기와 유다 국가의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살펴본다는 점에서 이 자료 사이에 차이점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25장은 그분의 심판 메시지의 예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1장부터 25장까지는 예레미야 36장의 이야기와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20년 동안 설교한 후에 그가 전 과정에 걸쳐 설교해 온 메시지를 두루마리에 기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의 사역의.

예레미야는 분명히 모든 단어를 기록하거나 그가 설교한 모든 설교의 사본을 우리에게 줄 수는 없지만, 1장부터 25장은 그 두루마리의 모습과 예레미야가 설교한 메시지를 반영한 것 같습니다. 26~45장에는 사람들이 그 메시지에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설명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소식을 전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에 대한 반응은 어땠나요? 그것은 책의 두 번째 섹션에서 구체화되고 설명되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서의 초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일부 통계는 이를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표현은 예레미야서에 155번이나 나온다.

여호와와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셨다, 나에게 임하셨다는 표현이 23번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의 선언으로 한 구절이나 부분, 신탁에 대한 묘사가 167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서는 주님의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여호와와 말씀에 대한 유다의 반응에 관한 것입니다. 또한 37~44장에서는 유다의 마지막 날에 일어난 일, 즉 예루살렘 성의 멸망과 40~44장에서 그 멸망의 여파에 대한 연대순 이야기를 더 많이 제공할 것입니다. 유다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지 않았다는 사실의 결과로 일어난 일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책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Andrew Sheed가 했던 말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의 입에서 불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파멸, 허물어짐, 유다 나라의 배도와 불신앙으로 인해 해체되는 것, 그러나 그 후에는 재건하고 회복시키실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선지자의 삶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에 대한 많은 이야기와 서술, 설명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선지자들 사이에서 독특합니다. 다른 예언서에도 그런 내용이 몇 권 있지만 요나서만큼 삶과 선지자의 삶에서 일어나는 실제 사건에 초점을 맞춘 매우 짧은 요나서 외에는 다른 예언서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예를 들어, 이사야서에는 6~8장과 36~39장에 이사야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레미야서에는 주로 이사야서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춘 20개의 장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삶. 그래서 저는 이 일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여기에 몇 가지 좋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저는 신학교 교수로서도 학생들이 이야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로부터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섹션에는 놀라운 문학적, 수사적, 신학적인 예술성이 있습니다. 이 책의 이 특정 부분은 나에게 중요합니다. 몇 년 전에 나는 예레미야서 26장부터 45장에 대한

논문을 썼고, 논문을 가져와서 그 일부를 읽고 싶은 충동을 확실히 억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강의보다 지루해.

이제 이것에 대해 조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부터 45장까지는 예레미야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이 책의 목적은 예레미야의 생애에 대한 전기를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의 이야기 자체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들의 선택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신학적 성찰을 제공하는 데 더 가깝습니다. 예레미야서의 이 부분 전체에 걸쳐 나타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거나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할 것입니다.

사실 제가 논문을 썼을 때, 이 부분의 부제목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듣다, 순종하다의 히브리어 단어는 쉼마(Shema)이다. 그래서 선지자는 반복해서 말할 것입니다. 또는 이야기가 우리를 위해 반복적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그들은 듣지 않았거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표현이 이 구절들에 나옵니다. 40장 3절. 42장 13절, 21절. 43장 7절. 그리고 44장 16절, 23절.

따라서 표현은 전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작동합니다. 그것은 26장에 있습니다. 44장의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게다가 그것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디어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26장에 이르면서 막 소개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책의 첫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문제입니다.

예레미야서의 문학적 구성을 연구하면서 제가 알아차린 것 중 하나는 요약 부분과 산문 서술에서 여러 번 시에 대한 해석적 지침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 요약하는 것은 반복되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백성들은 선지자가 전하는 말을 듣지도,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들은 예레미야가 등장하기 전의 역사를 통틀어 오랫동안 듣지도 않았고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7장의 성전 설교에서 이것이 메시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문제가 됩니다. 23절에 내가 그들에게 준 계명을 읽노니 쉼마야 내 말에 순종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도를 행하여 너희가 복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고, 쉼마에게도 순종하지 않았으며,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자기 꾀대로 행하여 뒤로 물러가고 앞으로 나아가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을 날마다 그들에게 꾸준히 보내었느니라. 그러나 그들은 내 말을 듣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목을 곧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아버지보다 더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레미야의 메시지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요약 진술이 아닙니다.

여러 면에서 이것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의 전체 역사를 요약한 진술입니다. 11장 7절부터 10절까지, 깨어진 언약과 언약의 저주에 관한 또 다른 산문 설교입니다. 7절에 보면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엄히 경계하고 오늘까지 끈질기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쉼마야 내 말을 청종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모두 그 악한 마음의 완고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말을 그들에게 응하게 하였느니라 같은 내용, 같은 표현이 산문 섹션에서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19장 15절, 예레미야가 토기장이를 두 번째로 방문한 후, 모든 일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멸망하고 심판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가 항아리를 깨뜨릴 때.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5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 성과 그 모든 성읍에 내가 내린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그들이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단어.

좋아요? 그래서 산문 부분인 25장은 우리가 책의 첫 부분에서 본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요약입니다. 그리고 25장 3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요시아 제13년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끈질기게 말했지만 너희는 듣지 않았다.

너희가 듣지도 아니하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 하지도 아니하였거늘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부지런히 보내시며 이르기를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레미야서의 문학적 구성과 수사적 전략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점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책의 두 번째 섹션 전체에서 반복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나 또한 책의 첫 번째 부분에서는 실제 메시지가 전파되는 동안 이 메시지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요약하는 산문 구절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이 같은 문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예레미야서의 메시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점은 예레미야서는 아무렇게나 엮어 만든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받아들이고 이야기와 함께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 뒤에는 수사학적 계획이 있으며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이 모든 것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집중하도록 안내할 것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의 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역사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알아차리게 될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책의 이 부분을 이해하려고 하면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사실 예레미야서를 손에 들고 읽으면 이것이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섹션에는 실제 연대기가 없습니다.

아니면 앞뒤로 건너뛰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장르 간에 앞뒤로 건너뛰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형적이고 연대순으로 읽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는 예레미야 사역의 첫날부터 끝까지의 전기를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는 우리가 읽는 방식과 이해하는 방식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배열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이 이 섹션의 신학적 메시지와 신학적 설계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좋아요, 이제 이것에 대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찾으려고 한다면, 예레미야서 26-45장을 읽고 연대기에 주의를 기울이려고 한다면 이런 것이 보일 것입니다. 26장에는 여호야김 통치 초기인 609-597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7-29장에서 우리는 BC 597-586년에 통치한 시드기야의 통치로 즉시 뛰어든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나란히 배치됩니다. 30장과 31장에는 연대기가 없는 시적 신탁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심지어 서사라는 장르도 벗어났습니다. 32장과 33장에는 시드기야 시대의 메시지와 희망의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산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심판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될 34장의 시드기야의 삶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35장과 36장으로 가보면 우리는 여호야김의 통치 기간인 609-597년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야김 26장부터

시작하여 시드기야의 자료와 시적 예언 27-34장, 그 다음 35장과 36장을 가지고 다시 여호야김으로 돌아갑니다.

37-44장에는 아마도 이 책의 이 부분 중 가장 연대순으로 정렬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원래 독립적인 소스로 존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다의 마지막 날에 일어난 일에 대해 좀 더 연대순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을 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왕이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거부했을 때 예루살렘이 무너졌는지, 그리고 그 여파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레미야는 그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 가운데 선지자이고, 예레미야는 그의 사역이 끝날 때 군대 장교들에 의해 그곳으로 끌려갔을 때 이집트에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그 부분과 26-45장의 그 부분은 상당히 연대순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바룩에게 주어진 신탁인 여호야김 4년의 마지막 결론 장인 45장은 609-587년, 특히 기원전 6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야김, 시드기야, 여호야김, 시드기야, 예루살렘의 멸망, 그 여파, 그리고 여호야김의 통치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것은 분명히 연대순이 아닙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다시 말하지만, 이 책의 목적은 예레미야의 삶의 이야기를 논리적인 방식이나 연대순으로 우리에게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 자료의 배열이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듣기를 거부하는 반복적인 순환을 강조한다고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예레미야는 엄청나게 긴 사역을 했습니다.

적어도 45~50년 정도 지속됩니다. 그래서 제가 26-45장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믿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예레미야의 사역은 세 가지 기본 기간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이 세 가지 서로 다른 시기의 사건들이 때로는 연대순이 아닌 방식으로 함께 결합되어 예레미야의 사역 초기에 사람들이 가졌던 반응이 실제로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의 사역이 끝날 때 사람들이 가졌던 반응.

그래서 예레미야 사역의 초기 단계를 597년 이전의 때로 상상해 볼 수 있다. 바벨론의 위기가 정말로 심각해지기 전의 때는 2차 포로의 물결이 물러가고 여호야긴 왕이 왕위에서 폐위되는 때이다. 26장과 36장에는 예레미야 사역의 초기 단계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당신이 회개해야 하고, 당신의 길을 바꿔야 하며,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심판을 보내지 않으실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따라서 사역 초기에는 유다가 나중에 예레미야 사역에서 갖지 못할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시점에서 실제로 회개할 수 있으며, 하나님은 심판을 보내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597년 이후, 이미 2차 유배의 물결이 건히고 587년과 586년에 예루살렘의 멸망이 다가오고 있는 지금, 그들에게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때 그들이 직면한 선택은 바벨론 사람들에게 항복하여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당신은 무슨 일이 있어도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항복할 수도 있고, 멸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사역의 초기 단계에서 그들에게는 회개하고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정당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도예가를 처음 방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유배라는 파괴적인 심판을 겪지 않고도 모양을 바꾸고 개량할 수 있는 젖은 점토가 여전히 있습니다. 좋아요?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 사역의 초기 단계에서 그들이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거부했는지를 묘사하는 사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성전 설교를 마친 후 우리야라는 선지자를 처형합니다. 예레미야의 두루마리가 그에게 읽혀진 후에, 그는 그것을 잘라서 불 속에 던졌습니다.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597년 이후, 두 번째 유배의 물결 이후, 587년, 586년,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 이전에도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27장과 28장, 29장, 34장, 37장부터 39장에는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사실을 묘사하고 설명하는 시드기야 통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전한 메시지는 바벨론에 복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너와 네 지휘관들과 너희가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항복하면 너와 네 신하들과 백성이 멸망을 면하려니와 너희가 항복하지 아니하면 바벨론 사람들이 모든 것을 멸하리라.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37장 1절과 2절에 이런 요약이 나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땅에서 왕으로 삼은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러나 그와 그의 신하와 그 땅 백성은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예레미야 사역의 초기인 여호야김 시대의 에피소드를 예레미야 사역의 두 번째 단계인 시드기야의 에피소드 바로 옆에 배치하여 기본적으로 예레미야도 같은 반응을 얻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과 시드기야는 좀 다른 사람들인 것 같았습니다. 여호야김은 분노와 적대감으로 반응합니다. 그는 실제로 예레미야를 물리적으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그의 거부는 끊임없이 선지자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시드기야의 거부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알아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에게는 진정으로 순종할 용기와 두려움이 부족합니다. 또는 진정으로 순종할 용기와 주님에 대한 두려움이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여호야김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사역의 세 번째 단계는 587년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로 아마도 580년쯤까지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처음에 예레미야는 백성들과 함께 그 땅에 남아 있다.

그분은 그곳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실 것입니다. 제 생각엔 아주 하인과 같은 방식으로 그곳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에게 선택권이 있었다면 그는

바빌론으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실제로 여기 두 장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포로 생활의 여파 속에서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은 실제로 그가 포로 생활 이전에 그들에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바벨론에 복종하십시오.

바빌로니아 사람들을 섬기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그 소식을 거부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나아와 이르되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리하면 너와 그 성읍과 방백들을 구원하리라 하면 방백들이 돌이켜 이르되 예레미야는 반역자라 하더라

그는 반역을 조장하고 바벨론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그들은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의 여파 속에서 예레미야도 같은 말을 하려고 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약 70년 동안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벨론을 처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때에는 바벨론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의 여파에 있는 사람들은 시드기야가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바벨론에 복종하라는 메시지에 반응할 것입니다. 그들은 선지자가 말하는 것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집안의 이 배신자인 이스마엘은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임명한 총독 그달리야를 살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바벨론에 복종할 것입니다. 좋아요, 당신은 예레미야의 삶과 사역에서 유다 백성들이 경험한 모든 일들, 그리고 그가 20년 이상 그들에게 설교한 후에 심판이 내려지고 그 도시가 멸망될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 후에는 그들이 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그들이 선지자가 말한 것에 반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그달리야를 암살하고 도망한 후에 또 다른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옵니다. 이 배신자로 도망치려는 이스마엘로부터 유대인 난민들을 구출하는 요하난이라는 남자가 이끄는 장교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레미야에게 와서 말합니다. 예레미야야, 당신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가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금하셨고,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위해 기꺼이 기도하겠노라 하였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제 선지자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선지자가 그들에게 지시를 줄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자 예레미야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리라”고 말했습니다. 10일만 주세요.

그리고 그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예레미야는 42장과 43장에서 요하난에게 돌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벨론에 복종하십시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벨론에 복종하여 주님을 섬기십시오. 아시다시피, 요하난과 그의 부하들은 이집트로 도피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달리야의 죽음에 대한 바빌론 사람들의 보복을 피하는 길이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땅에 머물러라. 바벨론에 복종하십시오.

내 말은, 예레미야가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분은 시드기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마엘과 백성에게 말하였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요하난과 이집트로 내려가고 싶어하는 이 군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43장 7절에는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애굽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레미야를 납치해서 데리고 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의 목적은 예레미야의 사역에 대해 매일매일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엄격한 연대순으로 나열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것이 의도한 것은 예레미야 사역의 시작부터 예레미야 사역의 마지막까지 그것을 특징짓는 한 가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이 연대순으로 정리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 점을 더 효과적으로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에 대한 반역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사이클을 우리가 지나갈 수 있을까요? 이제, 예레미야서의 이 특정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하나님께 대한 백성의 불순종에 대한 책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며, 불순종은 종종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닥칠 박해의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26-45장에는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는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서에는 예레미야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했지만 사람들이 듣지 않고 그 불신앙을 선지자 자신에게 뒤집어씌우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책을 통해 작업하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고 구현하게 된 다양한 방법을 언급했습니다. 그의 말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서도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는 예수님을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의 살아있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들이 종종 그 메시지에 반응하는 방식은 선지자를 확대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예레미야를 보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그는 두루마리입니다. 그의 삶은 백성들에게 주어진 메시지이며, 여호야김이 그의

예언의 두루마리를 잘라낸 것처럼, 백성들은 그가 가진 것을 듣고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살아있는 두루마리를 자르려고 할 것입니다. 말하기.

이 책에 나오는 예레미야에 대한 박해는 실제로 11장 18절부터 23절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예레미야가 첫 번째 애도 기도를 한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구절에서 아나돗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으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그의 적들에게 복수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여기가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예레미야의 앞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의 고향, 이 작고 작은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선지자는 자신의 고향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하지 않으며 예레미야도 자신의 삶에서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일을 겪으셨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반대가 생겼다.

예레미야의 부르심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배웠습니다. 내가 너를 낫 성벽처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견고한 성처럼 만들겠다. 그 말은 그에게 즉시 알려졌어야 했다.

이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박해 형태는 11장에 있습니다. 20장 예레미야가 항아리를 깨뜨리는 표징 행위 이후 20장 1-6절에 바셀이라는 제사장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차꼬에 채웠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예레미야가 26-45장에서 겪게 될 다양한 유형의 반대에 대한 서막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예레미야는 그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하고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싫어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위협을 받거나 학대를 당하는 모든 종류의 일을 겪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를 대할 때 그것을 반영할 것입니다.

좋습니다. 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단한 개요와 간단한 설문조사입니다. 26장에서는 예레미야가 성전 설교를 합니다.

나는 여기에 그가 7장에서 설교한 메시지의 다른 버전이 있다고 믿습니다. 지도자들과 백성 모두의 즉각적인 반응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집을 반대하는 예언을 하였기 때문에 죽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27장과 28장에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정복에 대해 설교하고 있으며, 바벨론에 대한 백성의 속박을 상징하는 나무 멍에를 메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와서 멍에를 부수고 2년 안에 바벨론의 위기가 끝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과의 반박과 반대를 받게 될 것입니다. 29장에서는 예레미야가 그곳에 살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 살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반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27-29장에는 이런 종류의 문학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제가 예언적 반영이라고 부르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본받습니다. 그는 주님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와 이름으로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멍에를 메고 표징 행위를 합니다. 하나님은 멍에를 메고 표징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29장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포로 생활이 70년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에 정착하여 살아야 한다는 편지를 포로들에게 보냅니다. 스마야라는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어 책망해야 한다고 반대 방향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예언적 반영의 또 다른 행위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편지를 씹습니다. 스마야는 편지를 씹습니다. 그래서 온갖 반대가 있을 겁니다.

32장. 예레미야는 마지막 날에 감옥에 갇혀 있고 다양한 형태의 투옥을 당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모든 것이 연대순으로 어떻게 조화를 이루나요? 한

작가는 우리가 한 감옥에서 다른 감옥으로,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직조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장소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서로 어울리는지 항상 아는 것은 아닙니다. 감옥은 예레미야 사역의 많은 배경을 제공합니다. 36장.

예레미야의 두루마리가 성전에서 읽혀집니다. 예레미야는 숨어 들어가야 했습니다. 바룩은 숨어 들어가야 합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여호야김에게 읽어주자 여호야김은 칼을 들고 그것을 잘라 두루마리를 한 개씩 불에 던졌습니다. 만일 여호야김이 예레미야에게 손을 뻗을 수 있었다면 그에게도 같은 일을 했을 것입니다. 37장.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비난을 받아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봐요, 우리는 당신이 무엇을 하려는지 알고 있어요. 당신은 반대편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신을 감옥에 가두겠습니다. 당신은 궁금해합니다. 왜 그들은 그를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까? 38장. 예레미야는 군 장교들에 의해 구덩이에 던져졌고 그들은 그를 그곳에서 죽게 내버려두었습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가 전쟁 노력을 약화시키는 반역자라고 비난하기 때문에 이에 동조합니다. Avid-Melech라는 이름의 외국인이 왕을 설득하여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꺼내도록 한 후, 그들은 그를 다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성이 함락될 때까지 감옥에 갇혀 있었고 그를 풀어준 사람은 바벨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43장에서 그가 요하난과 군 장교들에게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한 후, 그들은 그의 뜻에 반하여 그를 강제로 데려가고 그는 이집트에서 망명 생활을 하면서 나머지 사역을 마치게 됩니다.. 우와. 예레미야는 그런 것들을 다 접하고 경험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기서의 목적은 전기가 아닙니다. 목적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을 겪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즉,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마주한 적개심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유형의 장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메시지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면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의 메시지를 가지고 왕에게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메시지를 가지고 군대 장교들에게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형태로든 박해나 반대를 계속해서 경험합니다.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의 이 부분의 구조와 디자인이 연대순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7~44까지의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인 구조는 연대순이 아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한 가지 가능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서와 디자인을 제공하는 가능한 구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구조는 우리가 예레미야의 삶을 해석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부터 25장까지의 산문 설교가 예레미야서의 메시지를 요약하는 일종의 이정표인 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가 이 다양한 이야기를 읽을 때 일종의 해석 격자가 되는 구조적 구절이 있다고 믿습니다. 예레미야의 생애와 사역에 대해.

그리고 일종의 해석적 그리드를 제공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저는 여호야김 프레임워크라고 부릅니다. 좋아요? 여호야김 프레임워크.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들과 예레미야의 삶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와 에피소드를 읽으면서 나는 여호야김 왕 통치 기간의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장(章)이 단 네 장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기억하시나요? 그는 예레미야의 주요 적대자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서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은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장 심각한 적대감을 나타내는 인물일 것입니다. 그분은 선지자 우리야를 죽였습니다(26장). 그분은 예레미야의 예언이 적힌 두루마리를 자르십니다.

그는 예레미야와 바룩을 체포하라고 요구합니다. 내 말은, 그들은 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믿고 있는 것은 여호야김 시대에 관한 이 네 가지 이야기, 에피소드, 메시지가 26장부터 45장까지의 틀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찾을 수 있는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26장 1절에는 여호야김 시대부터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35장 1절에는 여호야김 통치 초기로 제목을 붙인 또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 26.1과 같은 표현입니다. 여호야김 4년 36장 1절에 또 다른 여호야김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5장에서 이 부분의 맨 끝 부분에 다시 45장 1절이 있는데, 여호야김 제4년의 신탁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는 여호야김의 이야기(26장)가 처음에 나오는 것을 봅니다. 45장 마지막 부분에 여호야김의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35장과 36장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우리에게 다소 무질서하고 순서가 없어 보이는 것 가운데서 이 프레임이 예레미야 26-45장을 두 부분 또는 패널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서로 평행하고 대비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6장에는 35장으로 끝나는 패널이 하나 있습니다.

36장과 45장에서 시작하는 두 번째 패널이 있습니다. 영국 작가이자 영국 작곡가로서 우리가 예레미야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쓴다면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구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가 종종 구두로 읽혀지거나 전달되는 구전 문화에서 우리가 여기서 진행하고 있는 일은 아마도 26-35장이 서로 평행하게 되는 평행법의 한 형태일 것입니다.

이 부분과 36-45장의 두 번째 부분 사이에는 유사점이 있습니다. 또한 26-35장에는 36-45장과 비교할 때 중요한 몇 가지 대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쟁기질합니다.

내 생각에 히브리어 서술은 종종 패널로 이야기를 전달하고 서술 평행과 반복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책의 이 특정 부분을 살펴보면서 그러한 몇 가지 형태를 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좋아요, 이 여호야김 프레임워크는 26-

45장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합니까? 글쎄요, 저는 이것이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전달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여호야김의 통치 시기가 유다 역사에서 결정적인 순간이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사람이 성전 설교 후에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인 이 왕이 예레미야서의 두루마리를 자르는 것은 주님을 거역하는 결정적인 행위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이것을 분수령의 순간으로 봅니다.

여러 면에서 여호야김의 삶과 그의 통치에서 회개할 기회가 닫히는 것은 유다가 가능한 회개에서 돌이킬 수 없는 심판으로 옮겨가는 때입니다. 좋아요, 이제 36장과 45장에는 여호야김의 통치 기간에 특정한 시기가 있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605년은 바빌로니아인들이 갈그미스에서 이집트인들을 물리친 해입니다.

또한 이 해는 포로들의 첫 번째 물결이 바빌론으로 끌려간 해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야김 틀이 부분적으로 유다가 가능한 회개에서 돌이킬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심판으로 넘어간 때가 언제였는지를 우리에게 상기시키기 위해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성전 설교와 두루마리에 기록된 대로, 그것은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좋아요, 이제 이것의 의미를 더하고, 작가가 어떻게 이것을 결정적인 순간으로 묘사하고 있는지 더 검증하기 위해 25장 1절을 들어보세요. 기억하세요. 이 구절은 이 책의 첫 번째 주요 부분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25장 1절에는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제사년에 유다 모든 백성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장부터 25장까지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심판 내용을 마무리하는 결론 메시지는 언제 발생했습니까? 여호야김 4년.

그리고 그 구절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바벨론 사람들을 보내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70년의 포로 기간이 있을 것인지를 선언하십니다. 올해는 포로들이 끌려가는 첫 해이고, 여호야김 4년에 예레미야가 정한 다음 해입니다. 이것은 유다 역사에서 결정적인 순간이다.

그래서 여호야김 4년에는 책의 첫 번째 부분인 25장이 끝나고 두 번째 부분인 26장이 시작됩니다. 열방에 대한 예언을 소개하는 책의 세 번째 부분인 46장 1절입니다. 46.1에서 어떤 기간이 언급될지 여러분은 아마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세 번째 섹션이 있습니다.

열국에 관한 여호와와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애굽에 대하여는 유브라데 강 가 갈그미스에서 애굽 왕 바로노고의 군대를 쳐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제사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패한 일에 대하여라 . 그래서 저는 여호야김 프레임워크가 예레미야의 사역과 삶의 다양한 시기로부터의 이러한 이야기들을 취하고, 그 주위에 프레임을 두어 여호야김의 삶과 그가 왕이었을 때의 통치에 대해 생각하고, 그가 여호와와 말씀을 거부했을 때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유다 백성을 위해 염료를 던지시는 주님이십니다.

그것은 마지막 빨대였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또 다른 마지막 지푸라기가 있었습니다. 미가는 심판을 선포했고, 히스기야가 회개하자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므낫세는 그 이전의 모든 왕보다 더 악을 행하였더라 나는 예루살렘을 접시처럼 닦을 것이다. 하나님은 요시야의 개혁을 통해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야김의 경우에는 하나님을 최종적으로 거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거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최종적인 거절이 있으며, 염료가 던져지고 심판이 일어날 것입니다. 나는 여호야김 프레임워크가 그 점을 시사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이 두 섹션을 살펴보면서 Jehoiakim 프레임워크가 수행하는 두 번째 작업이 있습니다.

26-45장은 26-35장과 36-45장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그럼 첫 번째 패널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움직임이 있습니다.

26장 3절 첫 부분에서 예레미야가 이곳에서 성전 설교를 하려는 이유는 그들이 듣고 모든 사람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내가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나는 그들에게 그렇게 할 생각이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ulai . 아마도 그들이 들어줄

것이고 나는 마음이 누그러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26장에는 유다를 향하여 내려질 모든 심판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일 백성들이 귀를 기울인다면 하나님께서는 뜻을 내려 심판을 내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좋아요? 그래서 일어난 일은 그들이 듣지 않은 이러한 모든 예를 통해 분명히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그리고 35장에서 우리는 첫 번째 패널의 끝 부분에 이르렀고 여기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며 끈질기게 이르기를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지 말라 하였느니라. 26절에서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길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심판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그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선포한 모든 재앙을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주민에게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였음이라 그들이 듣지 않았다. 샤마.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전화했지만 그들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서 26장부터 35장까지의 첫 번째 패널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 패널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들을 기회가 있어도 결국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좋아요? 같은 움직임이 36~45장의 두 번째 패널에도 반영될 예정입니다. 알겠죠? 그럼 두 번째 패널로 가보겠습니다. 이 성명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여호야김 4년에 두루마리를 쓰는데 예레미야는 왜 이런 일을 하게 될까요? 3절. 혹시 유다 족속이 혹시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앙을 듣고 각 사람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할까 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과 죄를 사하리라.

따라서 26장으로부터 4년 후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도

있고,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판결을 내리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패널의 시작 부분에는 심판에서 면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좋아요. 어떻게 되나요? 자, 두 번째 패널 끝에 있는 44장 16절부터 18절까지 가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이집트에 있는 유대인 난민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말하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16절. 너희가 여호와와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서원한 대로 다 행하여 이 이방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겠나이다.

이봐, 우리는 네 말을 듣지 않을 거야, 예레미야. 따라서 첫 번째 패널에서 보았던 것과 동일한 움직임이 두 번째 패널에도 반영됩니다. 그것은 회개하고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가능성에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국가의 멸망을 경험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44장 끝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여 다시는 유다 족속이 내 이름을 일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그리고 나는 이집트에 살고 있는 이 피난민들을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다.

그들 중 소수만이 땅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좋아요. 따라서 여기서 진행 중인 Jehoiakim 프레임워크는 몇 가지 작업을 수행합니다.

첫째, 여호야김 시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전환점이었습니다. 분수령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둘째, 예레미야서 전반부에서 본 것과 동일한 일을 합니다. 회개하고 구원받을 기회가 있었고 26~35장에서 그 내용이 끝나는 것을 봅니다. 36~45장에서 다시 끝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엄격하게 연대순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평행한 패널로 배치함으로써 우리는 이것의 반복성을 보게 됩니다. 1장부터 25장까지와 같습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기억해 보세요.

그것은 주님께 돌아오라는 반복적이고 반복적인 외침으로 시작됩니다. 이러한 회신 전화는 점차 줄어들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도공을 두 번 방문하게 된다.

여전히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직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있는 젖은 진흙입니다.

토기장이를 두 번째 방문하면 당신은 부서질 고정된 그릇입니다. 책 전체에 걸쳐 회개할 기회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프레임워크는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Jehoiakim 프레임워크에는 마지막 한 가지가 있습니다. 26-35장의 첫 번째 부분에는 위로의 책이라고 불리는 30-33장에 회복의 약속이 나옵니다. 우리는 판단에 너무 집중해 왔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야기하지 않았습시다.

그러나 이 모든 국가적 불복종 가운데에도 회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오는 불순종과 그 뒤에 오는 불순종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은 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포로 생활이 끝난 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회복시키실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40-43장의 두 번째 패널에서 보는 것 사이에는 매우 흥미로운 대조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포로 생활의 여파로 사람들이 더 많은 불순종과 더 많은 심판과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진노를 당합니다. 들었다. 복원이 있을 것이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생애와 시대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다시 데려오실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6장부터 45장에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에

대한 반응과 반응에 관한 아주 좋은 이야기,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사역의 다양한 시기마다 적개심이 있었고, 거절이 있었고, 무관심이 있었고, 선지자에 대한 박해가 있었으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것이 유다의 심판이 궁극적으로 임하게 된 이유입니다.

이를 실제로 적용해 보면, 나는 예레미야의 삶에서 우리가 내리게 될 가장 중요한 선택이자 결정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상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여호와의 말씀에 관한 책이다.

죽음을 가져오는 능력도 있지만 생명을 가져오는 능력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은 우리의 반응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연구하면서 유다가 예레미야의 메시지와 주님의 말씀에 반응한 부정적인 방식이 우리에게 진정한 삶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과 메시지에 순종하는 데서 온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이는 예레미야 시대에 선지자를 통하여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은 방식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서에 대한 강의를 하는 Dr. Gary Yates입니다. 이것은 세션 19, 26~45장, 구조적 개요입니다.